



제주 5개 도립예술단 '창작 오페라' 만든다

올해 개발 착수... 내년 전국체전 맞춰 본공연 도 "장기적으로 제주 대표 브랜드공연으로 발전"

제주 도립예술단들이 합동으로 제주를 소재로 한 대형 창작공연을 만든다. 도립예술단 공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공연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 도립예술단과 함께 합동공연을 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 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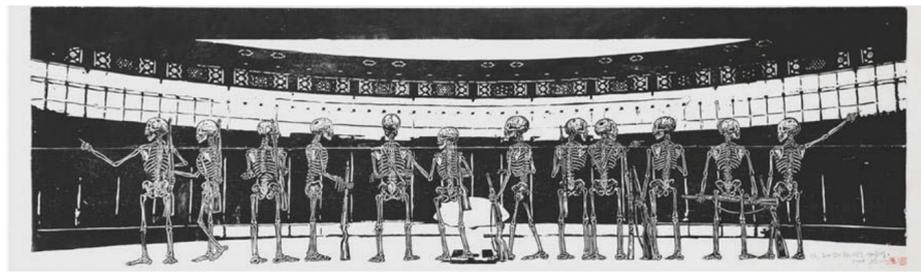
공연 주제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탐라국과 고려의 역사적 이야기,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한 제주 자연생태, 제주의 신화와 설화, 광해군의 제주 유배 등 다양한 제주의 이야기들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를 '작품 개발의 해'로 정하고 공연 개발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평가회와 3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각 도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이달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본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개발에 착수한다. 이어 작곡가와 연출진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8일 제주문예회관에서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인다. 2026년 전국체전 시즌에 맞춰 본공연을 유료로 진행하고, 이후 2027년부터는 도의 공연·상설 공연으로 확대해 도립예술단의 공연 콘텐츠가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합동공연 개발은 도립예술단의 창작 역량을 키우고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공연 브랜드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박경훈의 '초대반지 못한 사람들-위패봉안실2(2025)'

총을 든 백골들... 목판화로 새긴 4·3

박경훈 작가 '백골난감'

제주서 10년 만에 개인전 서울·광주서도 동시 개최

목판화를 통해 제주4·3을 알려온 박경훈 작가가 10년 만에 제주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포지션민제주에서 열리는 박경훈 작가 4·3 목판화 초대전 '백골난감'은 이렇듯 제주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 작가가 4·3을 소재로 새롭게 작업한 판화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이름 잃은 항쟁에 바치는 때늦은 조사(弔辭)이다.

4·3 7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박 작가가 4·3을 소재로 새롭게 작업한 판화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상징은 '뼈와 총'이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총을 든 백골들을 마주한다. '뼈'는 70년의 시간 속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법 테두리 밖에서 예외자로 존재하는

4·3항쟁의 영혼을, '총'은 항쟁을 상징하는 소재다.

작가는 "애도의 차별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지 못하는 4·3 77주년의 현재를 사유하고자 준비한 전시"라고 전한다.

이번 전시는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에서도 동시에 열린다.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나무아트에서, 이달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주 오월미술관에서 진행된다. 하나의 원판으로 여러 점을 찍어내는 판화 이기에 같은 작품을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박소정기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서 '봄봄 음악회'

정원에서 '봄봄 음악회'를 연다. 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예술인들이 무대를 꾸민다. 제주 대표 퓨전국악밴드 '밴드이강',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과 위로 송으로 사랑받는 '부부천재(커피

소년·제이레트 헤션)'가 출연한다. 음악회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 박물관 무료입장, 어린이 박물관 탐험 프로그램, 식목일 맞이 묘목 나눠주기, 민속놀이 체험존 등이 운영된다. 박소정기자

제주별미영양식 골라담은 한끼 식사 **팡! 팡! 팡!**

팡 초특가 할인판매

제주웰링 K-밥상
건강식
1호 세트
정상가 78,000
할인가 54,000

갈치조림 400g 2팩 + 고등어조림 500g 2팩 + 성계전북미역국 400g 2팩

팡 안방까지 무료 택배

제주웰링 K-밥상
주집한
2호 세트
정상가 60,200
할인가 45,000

갈치조림 400g 1팩 + 고등어조림 500g 1팩 + 성계전북미역국 400g 1팩 + 제주물국 500g 2팩 + 고사리육개장 500g 2팩

팡 상품구성, 단체주문 자유롭게 별도 주문

제주웰링 K-밥상
골고루
3호 세트
정상가 49,600
할인가 38,000

갈치조림 400g 1팩 + 고등어조림 500g 1팩 + 성계전북미역국 400g 1팩 + 제주물국 500g 1팩 + 고사리육개장 500g 1팩

● 제주전통 요리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 냉동제품으로 택배 시 아이스박스에 입고하여 무료로 배달됩니다.

● 간편식(HMR)으로 조리없이 4~5분 그릇에 데워 먹는 가정 상식식품입니다. ● 4계절 내내 우리 가족 건강식 + 1인 혼밥 식사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문의처 :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 뭉 이 꼴엔 "누님, 나랑 아양하게 놀레 볼러보논디 잘 도웨췌서양"

좁 네 꼴았저 "기여, 알았저. 꼴이 허여보게"

하르바지 꼴엔 "아오덜야, 이제부터 미래에서 온 예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 울 흘 거난 아양하게 놀레 허멍 폼 이악 소꿌더래 들어오라"

'그레이스 호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 생산성광 필요 웃인 많은 부분을 포기 했주만, 꺾침은 살아남았다.
생존자별 투표에서 누게신디 꼴을 선세하는 의미까지 포기허분맹허민 인 류가 살아남아사 흘 이유가 웃다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역사 시간에 배았다.
"밥 삼춘, 오닐이 무신 날인지 알았지? 배간 장미 다섯 송이 줌서"
"오십달롱이여"
무뚝뚝한 밥 삼춘은 활인해주는 뺨이 웃다.
"오닐이 나 생일인 거 알았수게? 생일선물인 썸 치고 허품 깎아 주민 어 디가 아파마췌?" <계속>

☞ 뭉 이 꼴엔 "하르바님, 나 미래에서 온 예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꿈 이악을 고분고분 잘 들었시난 그냥 꼴아췌서양. 주인공 예나는 잘도 ☞망진게양"

제주어 풀이

- *아양하다 : <음직> 어린 아이의 말로 '놀다'의 뜻.
- *도웨췌서양 : 도와주세요. *위허연 : 위하여서.
- *꼴침은 : 꺾침은. *선세하는 : 선물하는.
- *의미까지 : 의미까지. *허여분맹허민 : 한다고 하면.
- *알았수게 : 알고 있지요. *허품 깎아 주민 : 조금 싸게 주면.
- *들었시난 : 듣고 있으니. *꼴아췌서양 : 말해주십시오.
- *☞망진디 : <그림> 사람이 똑똑하고 야무지다.

"해녀의 역사 찾습니다"... 자료 구입 추진

해녀박물관, 18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체계적인 해녀문화 자료 수집과 전시·조사연구 활용을 위해 해녀·민속·해양문화 관련 자료 구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료구입 대상은 근현대 제주해녀 관련 사진과 기록물, 한반도 내 바깥물질 사진·기록물, 기타 홍보용 제주해녀 사진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근현대 제주와 해녀 관련 전시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방침이다.

접수는 이달 18일까지 해녀박물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kms4306@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해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녀박물관(064-710-7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녀박물관은 제주여성고 해녀의 삶을 담은 생활도구, 해녀들이 실제 사용했던 물집도구 등은 무상 기증의 절차를 통해 연중 수집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